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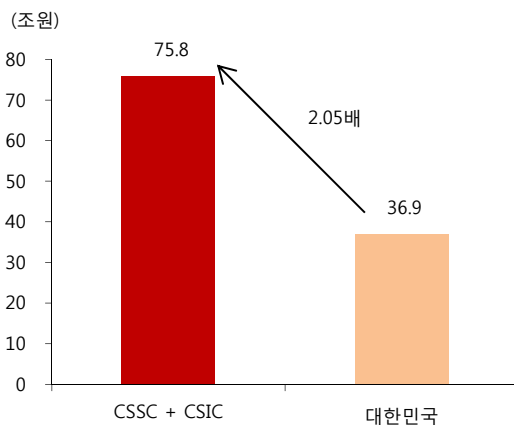
# Issue Comment

- ✓ 지난 일주일간 조선업 주가가 일제히 하락함
- ✓ 중국 CSSC, CSIC의 합병으로 저가 경쟁 치열해질 전망
- ✓ LNG 탱커 용선료도 어느덧 \$44,000/day 수준으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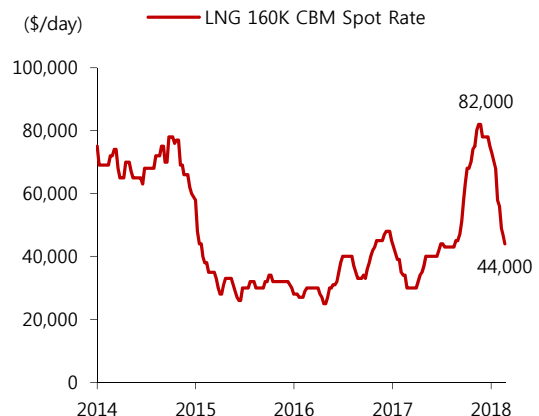
## 최근 조선주 주가 조정 point 점검: 중국發 악재와 잦아든 발주 모멘텀

지난 일주일간 현대중공업 -12.2%, 삼성중공업 -5.4%, 대우조선해양 -9.3%, 현대미포조선 -5.5%의 주가 조정이 발생했다. 투자심리 악화는 중국 CSSC와 CSIC 간의 합병 이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SSC와 CSIC는 각각 7개의 산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 합병시 14개의 도크를 보유하게 된다.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합병 CSSC, CSIC는 718억불(75.8조원) 규모이며 국내 4사 합산 매출액은 36.9조원으로 중국 조선사가 약 2.05배 더 크다. 지난 1월 8일 발간한 "SK Cyclical Bulletin Release 5: 방향성을 달리할 수주산업, 건설과 조선"에서 밝혔듯이 조선업의 시장 경쟁 구도가 Only-Price Market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 와중에 중국 합병 법인은 비대해진 영업력으로 저가 수주 경쟁을 더 공격적으로 펼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 저마진 수주 우려가 아니라 수주 자체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절기 가스 수요 증대로 일시적으로 투기성 발주가 있었던 LNG 탱커 발주 환경도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다.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LNG 탱커 스팟 용선료가 어느덧 \$44,000/day 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 합병 중국 조선사와 한국 조선사의 매출 규모는 2.05배 차이



### LNG 탱커 스팟 용선료는 어느덧 \$44,000/day



자료 : Bloomberg, DataGuide, SK 증권

자료 : Clarkson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